

## 광주 군·민간 공항, ‘무안’ 간다…18년 표류 마침표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 첫 회의서 전격 합의  
2007년 논의…2013년 ‘특별법’ 이후 대상지 확정  
명칭 ‘김대중 공항’…5조7000억 이전사업 본격화

광주 민간·군공항이 마침내 무안으로 간다. 수년째 담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6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 주도로 마련된 공식 협의체 출범 회의다.

▶관련기사 2·5·8·9면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 협의에서 마련된 정부 중재안을 바탕으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우선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이후 군 공항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큰 틀이 담겼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민간공항 기능을 이전하고, 군 공항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지정과 타당성 조사, 주민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무안군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무안 지원 예산 1조원 가운데 부족한 재원은 정부 보조로 충당하고,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신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총 5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에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전 대상지 지원과 종전 부지 개발도 사업에 포함된다.

이번 합의로 광주공항이 ‘송정 시대’를 연 지 61년, 2007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2년 만에 이전 대상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다만 군 공항 이전의 경우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어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 잡았고, 민간공항은 1948년 광주비행장 개항 이후 1964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간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낸 뜻깊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6자 협의체는 대화와 신뢰를 토대로 오랜 난제를 풀어냈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다윈을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였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김대중공항’으로 리브랜딩

무안 국제공항 재가동 앞두고

이미지 쇄신·상징성 확보 계산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에 합의한 6자 협의체가 ‘통합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의도에 시선이 쏠린다.

통합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무안공항을 다시 세우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로 ‘이름’을 함께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국방부·기재부·국토교통부는 17일 6자 회동(TF)에서 통합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함께 공항 명칭 변경 검토가 같이 언급됐다. 안전·감독 체계를 보장하는 제도(항공청)와, 대외 이미지를 바꾸는 상징(명칭)을 ‘패키지’로 묶어 통합공항의 정당성과 제도의 메시지를 동시에 만들려는 구성으로 읽힌다.

명칭 변경 검토의 1차 목표는 ‘참사로 각인된 공항’ 이미지를 끌어내는 데

있다. 무기한 폐쇄로 침체된 항공 수요·관객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시설 보완이나 운영 혁신만큼이나 외관·인식 전환이 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통합이전이라는 구조 변화의 순간에 공항의 정체성을 새로 설계하는 ‘리브랜딩’ 전략이 명칭 논의로 표면화됐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축은 ‘브랜드 자산’이다. 국내 공항은 지명 중심이어서 전직 정치 지도자 이름을 단 공항이 없다. 반면 해외 주요 공항은 역사적 인물 이름을 통해 국가·도시의 정체성을 브랜딩하는 사례(케네디, 드골, 인디라 간디 등)가 적지 않다. 6자 협의체가 김대중공항 카드를 거론한 배경에는 통합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국제적 상징성과 접목해 드러내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다.

여기에 지역성도 결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안공항 인접 지역인 신안 하의도 출신이고, 지역에는 이미 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대학교 등 ‘김대중’ 명칭을 쓴 공공시설이 존재한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호남·충청·영남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한다

광주 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성장엔진 산업 내년 2월 선정

정부가 광주·구마·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호남·충청·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인 ‘5극3축(5개의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의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해 국민성장펀드 6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

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설정했다.

내년 2월까지 5극 3축 성장엔진 산업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

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중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도 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성장엔진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5극 3축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

가 권역 단위 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마·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마)을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호남·충청·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 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일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VVIP (B형)	700		- 회원업, 무기명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팀 기준 /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월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happinesscc@hanmail.net

#### · 골프호텔 객실

